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8, Vol. 27, No. 2, 573-581

〈Brief Report〉

# 한국 임상심리학자들의 역할과 활동: 2007년 조사 보고서*

권 정 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의 임상심리학은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임상심리학자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임상심리학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임상심리전문가 457명에게 임상심리학회 공식 메일링으로 설문지를 첨부하여 보낸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50명이 응답하여 약 33%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지는 총 8문항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임상심리전문가로서 주요 역할, 활동, 이론적 오리엔테이션 등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임상심리전문가로서 자신의 주된 역할을 임상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자/교육자, 연구자의 순으로 나왔다. 임상심리학자로서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7(표준편차: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으로는 종합병원과 대학교, 그 다음으로 사설 치료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왔으며, 이들 근무기관에 재직하는 임상심리학자가 전체의 반수 가량을 차지하였다. 임상심리전문가들이 현재 관여하는 활동으로는 심리치료 (35.4%), 심리진단 및 평가(33.0%), 연구 및 논문작성(21.0%), 강의(19.2%), 수련감독(18.1%), 행정(10.5%)인 것으로 나왔으며, 심리치료와 심리진단 및 평가에 50%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임상심리전문가는 27.3%, 26.0%로 비슷하게 나왔다. 한편 임상심리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론적 오리엔테이션은 절충적/통합적 이론(50.00%)과 인지행동이론(32.0%)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가지는 시사점과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조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임상심리학,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학자

---

* 본 조사를 위해 임상심리학회 공식메일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제 43대 권석만 임상심리학회 학회장님께 감사드림. 또한 본 조사의 자료수집과 분석을 도와준 제갈은주, 정지영에게 감사드림.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권정혜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Tel : 02-3290-2067 / Fax : 02-3290-2537 / E-mail : junghye@korea.ac.kr



www.kci.go.kr

한국의 임상심리학은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에는 육군병원을 필두로 임상심리학자들이 임상장면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1964년에는 임상심리분과회가 창립되는 등 정착의 기반이 마련되었다(염태호, 1996). 1971년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임상 및 상담심리전문가 자격기준을 정하고 전문가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 임상심리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대학원 교육과 함께 병원현장에서의 수련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당시 대학원을 졸업한 임상심리학도들은 대개 졸업 후 병원현장으로 나아갔다. 70년대 이전에 임상심리학자가 근무하던 병원이 총 10여개에 불과하였으나, 90년대 중반 임상심리학자가 전일제로 근무하는 병원은 20여개 대학병원과 30여개 공사립병원으로 늘어났다(염태호, 1996). 현재도 가장 많은 임상심리학자들이 병원 현장에 전일제 혹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어 이들의 역할과 활동은 우리나라 임상심리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임상심리학은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였다. 임상심리학자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로 법적인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고,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임상심리학에 대한 사회의 수요와 요구도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임상심리학자들의 수는 1990년대를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임상심리학회의 회원수는 1995년 대략 360명 가량으로 그 당시 한국심리학회의 총 회원수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임상심리전문가의 총 인원은 108명, 임상심리사는 총 31명이었다. 이후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0여년동안 임상심리학회 회원 수는 임상심리전문가 회원 457명, 일반회원 1336명, 준회원 827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6년 8월 기준으로 정신 보건 임상심리사 1급 411명, 2급 629명이며, 2004년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는 121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수적인 증가와 함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뚜렷한 변화는 임상심리학자들의 활동분야가 넓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전에는 임상심리학자들이 주로 대학과 병원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나 조금씩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개업, 기업과 공공기관 등으로 그 활동무대가 확장되었다. 1990년 초에 불과 대여섯 명에 불과하던 개업가의 수가 현재 40여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임상심리학자의 수를 고려해볼 때 개업한 임상심리학자의 수가 많다고는 볼 수 없으나, 병원과는 다른 치료를 제공하는 임상심리 개업가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개업가로서의 임상심리학자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업 뿐 아니라 지난 10년간 대학과 병원 이외 분야에서 일하는 임상심리학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일반기업에 전일제 상담자로 일하는 임상심리학자가 생겨났으며, 마사회, 음주문화센터 뿐 아니라, 최근에는 가정법원, 경찰, 병무청, 보호관찰소, 군대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임상심리학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임상심리학자들의 역할이나 활동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임상심리학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로서의 정체성과 활동, 역할, 만족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 자



www.kci.go.kr

료를 축적해오고 있다(Garfield & Kurtz, 1974; Norcross, Karpiak, Santoro, 2005).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심리학자들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임상심리학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앞으로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발견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임상심리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역할, 재직기관, 주요활동, 이론적 오리엔테이션 등을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임상심리전문가 전원 457명에게 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보낸 후 회수하였다. 보름 정도의 조사기간 동안 약 33%의 회수율(457명 중 150명)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조사시 적게는 43%(Kelly, 1961)에서 많게는 69%(Garfield & Kurtz, 1974)로 평균 57%의 응답율이 나타났다. 한국은 이에 비해서는 낮은 정도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이번 설문조사가 임상심리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분석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보았다.

### 측정도구 및 절차

응답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문항을 포함하는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2문항), 임상심리전문가로서의 주된 역할(1 문항), 재직기관과 근무형태(2 문항), 관여하는 활동(1 문항), 주된 이론적 오리엔테이션 (1 문항)과 전반적 만족도(1문항,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문항은 객관식이었으나 다중선택문항이 많았고, 구체적인 퍼센트를 기록하는 문항도 포함되었다. 조사는 임상심리학회 공식 메일링으로 설문지를 첨부파일과 본문에 제시하여 보낸 후 답신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최초 메일을 보낸 후 열흘 간격을 두고 다시 한번 응답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 결 과

응답한 임상심리전문가 150명의 평균 연령은 37.50(표준 편차: 8.06)세였고, 30대가 가장 많았다. 이들 중 30대에 임상심리전문가를 취득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62.7%), 그 다음으로 20대(31.3%)가 많았다. 표 1에서 보듯이 남자에 비해 여자가 3배 정도 많았으며, 서울과 경기지방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60%이상을 차지하였다. 임상심리전문가 취득 후 1-5년 정도 활동한 전문가가 가장 많았고(50.7%), 6년 이상 15년 미만 활동한 전문가가 약 38.0%에 해당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일정 년수 이상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임을 추정할 수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임상심리전문가로서 자신의 첫 번째 주된 역할은 임상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74.7%), 다음으로 학자/교육자(14.0%), 연구자(8.0%)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관에 따라 주된 역할을 분석해 보았을 때, 종합병원, 개인병원, 그리고 사설치료기관에 재직하는 전문가들은 자신의 주된 역할을 임상가로 보는 사람이 각각 91.7%, 95.5%, 95.0%였다. 대학교에 재직하는



www.kci.go.kr

표 1.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전문가자격 취득연한

| | | N |
|---|---|---|
| 연령 | 20-29세 | 9 ( 6.0%) |
| | 30-39세 | 95 (63.3%) |
| | 40-49세 | 36 (24.0%) |
| | 50-59세 | 8 ( 4.7%) |
| | 60대 이상 | 3 ( 2.0%) |
| 성별 | 남 | 37 (24.7%) |
| | 여 | 113 (75.3%) |
| 지역 | 서울 | 86 (57.3%) |
| | 경기도 | 23 (15.3%) |
| | 강원도 | 2 ( 1.3%) |
| | 경상도 | 20 (13.3%) |
| | 전라도 | 10 ( 6.7%) |
| | 충청도 | 6 ( 4.0%) |
| | 제주도 | 1 ( 0.7%) |
| | 외국 | 2 ( 1.3%) |
| 학위 | 석사 | 86 (57.3%) |
| | 박사 | 64 (42.7%) |
|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취득 연령 | 20-29세 | 47 (31.3%) |
| | 30-39세 | 94 (62.7%) |
| | 40-49세 | 7 ( 4.7%) |
| | 50-59세 | 1 ( 0.7%) |
| | 60대 이상 | 0 |
|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취득후 활동 년수 | 1년 미만 | 11 ( 8.0%) |
| | 1-5년 | 75 (50.7%) |
| | 6-10년 | 24 (16.0%) |
| | 11-15년 | 19 (12.7%) |
| | 16-20년 | 8 ( 5.3%) |
| | 20년 이상 | 6 ( 4.0%) |

표 2. 임상심리전문가의 주된 역할

| 역할 | N |
|---|---|
| 임상가 | 112 (74.7%) |
| 학자/교육자 | 21 (14.0%) |
| 행정가 | 2 ( 1.3%) |
| 연구자 | 12 ( 8.0%) |
| 자문가 | 3 ( 2.0%) |

사람은 자신의 주된 역할을 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52.2%), 임상가를 자신의 주된 역할로 생각하는 사람(30.4%)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대학 부설 연구소 또한 자신의 역할을 임상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84.6%).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임상가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3에는 임상심리전문가로서 주로 관여하고 있는 활동과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은 이 질문에 각각의 활동에 몇 퍼센트(%)의 시간을 보내는지 답하게 하였으며, 표 3에 제시된 숫자 각 항목에 50%이상의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의 수이다. 심리치료에 50%이상의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41명(37.6%)이었으며, 심리진단 및 평가에는 39명(35.7%)이었다.

다음으로 재직기관별로 임상심리전문가의 주요활동을 살펴보았다. 심리치료에 50%이상의 시간을 보낸다고 보고한 임상심리전문가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는 1명(2.4%), 개인병원 근무자 중에는 3명(7.3%), 대학에 재직하는 사람 중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중에는 14명(34.1%) 심리치료 활동을 주 활동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심리진단 및 평가에 50% 이상의



www.kci.go.kr

표 3. 임상심리전문가가 하는 주요활동[1)]

| 활동 | N |
|---|---|
| 심리 치료 | 41 (37.6%) |
| 심리 진단 및 평가 | 39 (35.7%) |
| 강의 | 9 ( 8.2%) |
| 수련 감독 | 7 ( 6.4%) |
| 연구 및 논문 작성 | 11 (10.0%) |
| 자문 | 0 |
| 행정 처리 | 2 ( 1.8%) |

표 4. 주요 이론적 오리엔테이션

| 이론적 오리엔테이션 | N |
|---|---|
| 인지행동/행동주의이론 | 48 (32.0%) |
| 절충적/통합적이론 | 75 (50.0%) |
| 게슈탈트이론 | 4 ( 2.7%) |
| 정신역동이론 | 11 ( 7.3%) |
| 내담자중심이론 | 4 ( 2.7%) |
| 가족체계이론 | 0 |
| 기타 | 4 ( 2.7%) |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전문가의 수는 재직기관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에 11명(28.2%), 개인병원에 15명(38.5%), 사설치료기관에 3명(7.7%), 대학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응답자들이 각 항목에 제시한 활동에 보낸다고 응답한 시간의 퍼센트를 평균했을 때, 심리치료에는 35.4%, 심리진단 및 평가에는 33.0%, 연구 및 논문작성에는 21.0%, 강의에는 19.2%, 수련감독에는 18.1%, 행정에는 10.5%인 것으로 나타났다.[1)]

현재 우리나라 임상심리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론적 오리엔테이션은 절충적/통합적 이론(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으로나 기법적인 측면에서 절충적/통합적인 입장에 서는 임상심리학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는 인지행동이론을 취하는 전문가가 가장 많았으며(32%), 정신역동이론(7.3%), 게슈탈트이론(2.7%), 내담자중심이론(2.7%)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임상심리전문가들 중에 심리치료를 주로 하는 전문가들의 응답경향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절충적/통합적 이론(51.2%)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 인지행동이론(19.5%), 정신역동이론(14.6%), 내담자중심이론(4.9%), 게슈탈트이론(2.4%)을 선호하였다. 기타에 해당되는 이론으로는 대상관계이론, 동기강화상담, 정서중심 및 실존적 지향, 실존치료 등이 있었다.

근무형태는 전일제 근무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1.3%, 시간제로 근무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7.3%로 밝혀졌다. 박사과정생은 그 특성상 별도로 분석하였는데 전일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대학교, 사설치료기관, 개인병원에 시간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나의 기관에서만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127명으로 응답자의 84.6%가 2-3개의 기관이 아닌 하나의 기관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재직기관은 종합병원(16.0%)과 대학교(15.3%), 그 다음으로 개인병원(14.7%)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5 참조), 이들 근무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상심리전문가가 응답자의 약 반 수 가량을 차지하였다. 한편 미래에 재직하고 싶은 기관으로는 대학교(34.0%),

1) 임상심리전문가로서 관여하고 있는 활동들 중 각 항목에 50%이상의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의 수를 제시하였다.



www.kci.go.kr

표 5. 임상심리전문가의 근무형태 및 재직기관

| | | N |
|---|---|---|
| 근무형태 | 전일제 | 107 (71.3%) |
| | 시간제 | 26 (17.3%) |
| | 박사과정 | 15 (10.0%) |
| 재직기관 | 대학교(심리학과/타과) | 23 (15.3%) |
| | 사설 치료 기관(Private practice) | 20 (13.3%) |
| | 병원(종합병원/국공립병원) | 24 (16.0%) |
| | 개인 병원/의원 | 22 (14.7%) |
| | 대학부설연구소/학생상담센터 | 13 ( 8.7%) |
| | 정신보건재활센터/보건소 | 0 |
| | 초, 중, 고등학교 | 0 |
| | 기업 부설 센터 | 8 ( 6.0%) |
| | 국공립 기관(ex. 가정법원/병무청) | 11 ( 7.3%) |
| | 기타 | 5 ( 3.3%) |

사설치료기관(30.0%)이었고, 다음으로 가정법원이나 병무청과 같은 국공립기관(9.3%)으로 응답하였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기관으로 높은 순위에 들었던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에 재직하고 싶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각각 4.7%, 0.7%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심리학자로서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27(표준편차: 1.14)로 나타났다. 한 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만족도를 평가한다는 제한점을 안고 있지만,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남성 임상심리전문가와 여성 임상심리전문가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남성이 4.08(표준편차: 0.87), 여성이 3.01(표준편차: 1.09)로 남성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5.30, $p$ <.001). 한편 지역이나 근무형태(전일제/시간제 등)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활동연한에 따른 만족도를 비교해볼 때 활동연한이 1-5년인 전문가들의 만족도는 3.09이며, 6년 이상인 전문가들의 만족도는 3.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연한이 오래될수록 만족도의 수치는 높아졌으며, 20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들의 만족도는 4.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기업부설센터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의 만족도는 평균 3.88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에 근무하는 전문가(평균 3.86), 사설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평균 3.80)들이 그 다음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국공립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의 만족도가 2.45로 가장 낮았고,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가(평균 2.73)와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전문가(평균 3.04)들의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매우 주목해볼 결과이나,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한 개에 불과하였으며, 각 재직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상반기에 임상 심리학자들의 활동을 조사하여 임상심리학의 현황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 조사에 응답한 임상심리전문가들 중 30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서울이 57.3%로 과반수를 넘는 수치였고, 강원도와 제주도는 각각 1.3%, 0.7%로 임상심리전문가의 비율이 현격히 낮았다. 한편 남녀 비율 역시 여자가 113명으로 남자에 비해 3배 정도가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중된 지역차와 성차는 본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뿐 아니



www.kci.go.kr

라 임상심리전문가 집단 전체에서도 나타나는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때 임상심리학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에 응답한 임상심리전문가들은 자신의 주된 역할을 임상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와 유사하게 많은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심리치료나 심리진단 및 평가에 할당하는 시간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연구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한 임상심리전문가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주요 재직기관이 종합 병원과 대학교, 개인 병원 및 사설 치료 기관 순인 것과도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 임상심리전문가들이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데 있어 임상가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의미있는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현재 많이 재직하고 있는 기관인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의 경우, 미래에 재직하고 싶은 기관으로는 매우 낮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이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임상심리전문가들의 지위가 보다 안정되고 이들의 전문적인 활동이 다양화되지 않는다면 유능한 임상심리전문가들이 병원 현장을 외면하게 되어 임상심리학의 발전에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본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다수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간제로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임상심리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론적 오리엔테이션은 절충적/통합적 이론이었고, 인지행동이론과 정신역동이론이 그 뒤를 따랐다. 이것은 미국 임상심리학자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보고되었던 결과로서(Norcross et al., 2005), 심리치료 분야의 최근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절충적/통합적 접근을 사용하는 임상심리전문가들이 환자의 상태나 특성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기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료접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에 응답한 임상심리전문가들의 임상심리학자로서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7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단 1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임상심리전문가들의 만족도가 결코 높지 않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장 최근의 미국 조사에서는 임상심리학자들의 만족도가 6점 만점에 평균 4.77로 나타났고, 이는 1995년도에 보고된 높은 수준의 만족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었다(Norcross, Karpiak, Santoro, 2005).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활동연한이 많지 않은 젊은 임상심리전문가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아 앞으로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우리나라 실정에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 또는 저하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임상심리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임상가로서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현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야 할 것이다. 개업은 물론이고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창출해 내고 도전해 나가지 않는다면 정신건강 분야에서 다른 전문가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릴 뿐 아니라 부진을 면



www.kci.go.kr

치 못할 것이다.

학회에서도 새로운 분야에서 활동하는 임상심리학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시행착오을 겪으며 얻어낸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전수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유사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임상심리학자들은 틈새시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새로운 현장을 개척해야 한다. 고도의 정보화를 이룬 우리 사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 실력 있는 새로운 전문가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우리 사회에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정신장애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다. 심장질환, 당뇨병, 비만을 비롯한 많은 신체적인 질병에 심리학적 개입과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법정 심리학 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임상심리학의 저변확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임상심리전문가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한 첫 번째 시도였지만 여러 면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응답자가 33%에 그쳐 우리나라 전체 임상심리전문가들의 역할이나 활동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응답율을 높이기 위해 문항수를 최소한으로 한 결과 조사내용이 빈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만족도와 관련 있는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조사방법이 자기보고에 그쳐 주관적인 편향을 지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 외에 전화면접을 비롯한 다양한 조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 나온 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 임상심리학의 발전을 모니터하고 자극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임상심리학의 40년 역사에는 언제나 학회 차원에서나 개인 내적인 차원에서의 위기와 역경이 있어왔다. 임상심리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위기나 역경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왔다. 본 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앞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전문가로서의 만족감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데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고대한다.

## 참고문헌

염태호 (1996). 임상심리학회 30년사. 서울: 하나의학사.

Garfield, S. L., & Kurtz, R. (1974). A survey of clinical psychologists: Characteristics, activities, and orientations. *The Clinical Psychologist*, 28(1), 7-10.

Kelly, E.L.(1961). Clinical psychology-1960. Report of survey findings. *Nessletter: Division of Clinical Psychology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4*(1), 1-11.

Norcross, J. C., Karpiak, C. P., & Santoro, S. O. (2005). Clinical psychologists across the years: The division of clinical psychology from 1960 to 2003.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1*(12), 1467-1483.

원고접수일 : 2007. 11. 30.
게재결정일 : 2008. 02. 19.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8, Vol. 27, No. 2, 573-581

〈Brief Report〉

# Report on the 2007 Survey Findings on the Korean Clinical Psychologists' Major Roles and Activities

**Jung-Hye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major rolesand activities of Korean clinical psychologists. A questionnaire was e-mailed to 457 members of the KCPA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The response rate was approximately 33%, and 150 people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8 items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ducational experiences, employment settings, professional activities, theoretical orientation and career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jority (74.7%) identified themselves primarily as clinical practitioners, followed by academicians and researchers. The psychologists' primary employment settings were universities, psychiatric hospitals and private practice. The major professional activities of the Korean clinical psychologists were psychotherapy (35.4%), diagnosis/assessment (33.0%), research/writing (21.0%), teaching (19.2%), clinical supervision (18.1%) and administration (10.5%). Among various theoretical orientations, eclecticism/integration (50.0%) was the most popular orientation and the next-most-popular orientation was a cognitive-behavioral orientation (32.0%). The level of subjective satisfaction with their career was moderate (Mean: 3.27, SD: 1.14 on the 5-point scale). The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 was discussed.

*Key words : clinical psychology, practitioner, clinical psychologist*



www.kci.go.kr